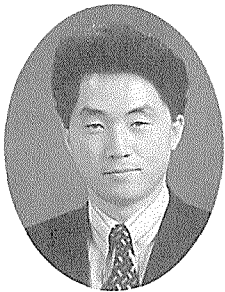


최근 외환·금융위기와 원유도입 안정대책의 추진



이 호 준

〈 통상산업부 석유정책과 사무관 〉

1. 최근 원유도입현황 및 문제점

지난 해 12월 이후 국내의 은행을 통한 L/C 개설 및 유전스 차입이 대부분 중단되는 등 외환·금융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정유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원래 원유도입은 대부분 유전스금융을 활용, 선적후 3~6개월이 지난 뒤 대금결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외환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유전스 차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여 대금결제의 현금(일람

불 L/C 포함)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지난 해 11월 약 7%에 그쳤던 현금결제비중이 12월 70%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1월에는 최대 8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연말부터 계속된 급격한 환율 상승이 이러한 자금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97.10:930원/\$ → '98.1.1~1.6:1,798원/\$).

현재 정유사들은 정상적인 상황일 때의 유전스 만기도래분은 물론 유전스차입 중단으로 부담하게 된 조기현금결제분 및 환율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 등 2중·3중의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금결제 비중 변화추이

(단위:%)

1997.11월	12월	1998.1월 전망
7.3	71.2	최대 80%

*'98.1월 현금결제비중 전망은 1월에 현금결제될 가능성이 있는 최대 수치임

그러나 이러한 외환·금융위기하에서도 정유사의 원유도입은 아직까지는 큰 차질이 없다. 이는 현재 도입되고 있는 원유의 선적계약 시점이 약 1~2개월이전이고, 선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도입원유분에 대한 대금결제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적차체에 큰 차질은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원유도입 및 처리, 재고상황을 볼 때, '98.1.14까지의 일평균 원유도입 및 처리는 각각 2,796천배럴, 2,569천배럴이고 가동율은 105.4% 수준으로서 전년동기 대비 별 차이가 없고, 원유 및 제품재고 또한 전년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2월 이후에도 원유도입에 아무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빠른 시일 안에 L/C 개설 및 유전스 차입 등이 원활해진다면 원유도입에는 별 다른 차질이 없겠지만, 현재와 같은 자금난이 지속된다면 결국 자금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부 정유사의 경우부터 원유도입을 줄이고 가동율을 낮추는 등의 대응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원유도입 일일동향

(단위:천배럴)

	'97.12	'97.1	
98.1(1.1~1.14)			
원유도입량	2,482	2,460	2,796
원유처리량	2,609	2,559	2,569
가동율(%)	106.9	105.0	105.4

* 월간동향은 일일평균임

* 제품개고는 나프타, LPG 등 모든 석유제품을 합한 몰량임

그러나, 금년 들어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는 시점이 3월말에서 작년 12월말로 소급 적용되기로 IMF와 협의가 이루어져 은행들의 경우 현 단계에서 수출입금융의 원활한 재개가 예상되고 있다.

또 단기채무의 만기연장, 신규차입의 확대 등 국제금융권의 우리나라에 대한 지원방안도 점차 구체화되는 과정이며,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와 스탠더드&푸어스사도 우리의 신용등급을 정크본드 수준에서 다시 상향조정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보이고 있는 등 전체적인 국내외적 외환·금융상의 분위기는 호전되어 가는 듯 하다. 물론 이러한 분위기가 정유사들에 대한 국내외은행권의 L/C 개설, 유전스차입 재개 등 실질적인 분위기 호전상황으로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원유도입인정을 위한 지원대책 추진

현재 정유업체가 당면한 어려움은 본질적으로 외환금융위기로 인한 자금난이다. 이미 통산부에서는 지난 '97.12월 원유도입을 위한 L/C개설 및 유전스차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재정원 등 관계부처와 협조를 시작하여 이래 정유사 자금난 해소를 위한 몇가지 지원정책을 시행하였다.

우선 작년 12월 22일부터 원유 수입시 부과하는 1.7\$/B의 수입부과금을 1개월분에 한해 2개월간 징수유예하여 정유사들에게 2,000억원의 자금부담 이월효과를 낳게 하였다. 또한 정유사의 석유비축의무를 33일분에서 30

일분으로 하향조정하고, 순수비축분(6일분)에 대해서는 석유수입부과금을 면제('97.12.26)하는 조치를 취하여 연간 1,300억원의 비용경감효과를 보았다.

또한 특소세·교통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재경원 및 국제청에 요청('97.12.13)한 바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1개월간의 수입부과금 징수유예조치를 동조치가 일단락되는 1월말경의 경제상황과 예특회계 세수측면을 감안, 그 확대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정부비축유의 단기적인 대여조치 등은 현 위기상황의 심각성 정도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통산부는 향후 외환·금융위기의 지속으로 원유도입이 차질을 빚게 되어 결국 국내석유수급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97.12.24일부터 정유5사, 유개공과 공동으로 석유수급대책반을 구성, 석유수급안정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 석유수급대책반에서는 현재의 위기진행 상황을 3단계로 구분, 각 단계별로 원유확보노력 강화, 강력한 소비절약시책 추진, 위기사 원유처리 및 석유제품수급 조정 실시, 단계적 비축유방출 등 수급양면 대책을 병행해 실시하는 석유수급안정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 및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원유 및 석유제품량은 '98.1.14 기준으로 정부 25일, 민간 44일 등 총 69일분인데, 유사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산업활동과 국민생활을 안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유5사들이 작년 한해 도입한 원유는 총 8억7천만B로서 금액으로는 178억\$에 이른다. 작년 한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총수입액 약 272억\$의 65%를 차지하는 막대한 양이다. 원유도입의 비중과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부로서는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 및 위기시의 효율적인 대책수립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가장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외환금융위기의 해소 및 금융시스템의 회복이다. 하지만 이것의 해결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볼때, 현재의 어려움을 국민, 업계 및 정부 모두 체질개선의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